

#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함병호\*

- 차례 -

1. 서론
2. 간접 인용절과 다른 내포절의 관련성
  - 2.1. 명사절
  - 2.2. 부사절
  - 2.3. 보절
3.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4.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명사절, 부사절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내포절 체계에서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를 논의하였다. 먼저, 명사절의 형식, 직접 인용절의 특성, 조사 ‘고’의 생략, 대상성의 의미를 고려하면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부사형 어미화와 다양한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간접 인용절을 부사절로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과 명사절의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종결어미와 조사 ‘고’가 결합한 형태는 부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이 어미들이 결합한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이다. 그러나 ‘고’가 생략되어 종결어미로만 구성된 간접 인용절은 명사절의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이때에는 종결어미가 절 표지로 기능한다.

**주제어 :** 인용절,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내포절, 명사절, 부사절, 보절

## 1. 서론

본고는 내포절 체계에서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포절은 단어나 문장과는 다르게 언어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장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는 이차적인 통사 단위이다. 따라서 한국어학에서 내포절은 다른 통사 단위들보다 그 범주적 특징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학교 문법에서는 내포절의 유형으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자에 따라서 그 범주가 상이하게 분석되고 있는 내포절의 하나가 인용절이다.

인용절은 ‘어떤 문장이 남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따오듯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위문에 안긴 절’로 정의된다(구본관 외 2015: 274). 다른 내포절들이 품사 범주와 통사적 기능이 함께 고려되어 성립되는 것과 달리 인용절은 ‘인용’이라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의미 기능에 의해서 성립되는 절이다. 또한 인용절은 의미적으로 인용동사의 내용역(contents)이<sup>1)</sup> 되면서 통사적으로 보절(complement)의 기능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sup>2)</sup> 따라서 다른 내포절과 비교해서 인용절의 성립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러 조건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용절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어학의 주요 문법서들에서 인용절의 기술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1) 가. 남기심 외(1985/2019: 352)

: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조사 ‘라고, 고’가 붙어서 이루어진

1) 내용역은 인용동사들이 요구하는 의미역을 말한다. 홍재성 외(2002: 293)에서 내용역은 ‘발화 동사, 사유 동사 등의 논항이 갖는 의미역’으로 정의된다.

2) 그동안 한국어 문법론에서는 용언이 요구하는 절을 ‘보문’이라고 명명해 왔다. 그러나 보문은 내포절의 형식이고 절과 문장은 구분되는 통사 단위이기 때문에, 보문보다는 ‘보절’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다. (따라서 인용절은 인용된 문장에 붙은 조사 ‘라고, 고’까지 이다.)

나. 구본관 외(2015: 274)

: 부사격 조사 ‘(이)라고’나 부사형 어미 ‘-다고, -냐고, -(으)라고, -자고’가 이끄는 부사절을 특히 인용 부사절, 줄여서 인용절이라고 한다.

다. 이익섭(2005: 357-358)

: 직접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인용일 때는 ‘-고’라고 하는 특별한 어미를 쓰는 것이다. <중략> 인용절은 직접인용이든 간접인용이든 일종의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1가)는 학교 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절의 특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포절 체계에서 인용절의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용 표지인 ‘라고’와 ‘고’를 격조사로 분석한다. 반면에 (1나)는 인용절을 부사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sup>3)</sup> 내포절 체계에서 인용절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직접 인용의 ‘라고’는 부사격 조사로 분석하지만, 간접 인용의 ‘고’는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부사형 어미 ‘-다고, -냐고, -라고, -자고’를 구성하는 형태로 본다. 그리고 (1다)는 인용절과 표지의 범주가 (1가)나 (1나)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라고’, ‘-고’를 모두 조사가 아닌 어미로 보며 인용절을 명사절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내포절 체계에서 인용절의 지위와 인용 표지의 범주적 특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의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학에서 인용절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3) 구본관 외(2015: 277)에서는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부사격 조사’의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인용의 기능을 반영하면 부사절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명확하게 합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용절의 지위 문제는 한국어 복문 체계의 설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에 종속 접속절을 모두 부사절에 포함하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어서 복문 체계의 마지막 퍼즐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인용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절은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구분된다.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의 일종이고 ‘라고’가 부사격 조사로 분석됨은 최근의 인용절의 논의에서 널리 수용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sup>4)</sup> 하지만 간접 인용절은 상대적으로 인용 표지 문제와 함께 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 인용절에 초점을 맞춰서 간접 인용절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명사절, 부사절, 보절과 간접 인용절의 관련성을 차례대로 살펴본 뒤에 간접 인용절의 정체성을 부사절과 명사절로 규정하고자 한다.

## 2. 간접 인용절과 다른 내포절의 관련성

간접 인용절의 통사 범주는 크게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의 세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sup>5)</sup> 먼저, 간접 인용절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명사절에 포함하거나 부사절에 포함하는 견해들이 있다. 이와 달리 절 체계에서 인용절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학교 문법과 같이 인용절을 다른 내포절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며, 둘째는 인용절을 인정하지만 내포절

4)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임은 2.1.절에서 논의한다.

5)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하는 논의에는 임동훈(1995), 김수태(1996), 이익섭(2005), 윤정일(2011) 등이 있으며, 부사절로 분석하는 논의에는 이필영(1993), 유현경(2003), 구분관 외(2015) 등이 있다. 이와 달리 인용절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논의에는 김선혜(2014), 김건희(2015) 등이 있다.

체계에서 다른 내포절들과 그 위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간접 인용절과 명사절, 부사절, 모절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2.1. 명사절

이 절에서는 먼저 간접 인용절이 지니고 있는 명사절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한 초기의 논의는 주시경(1910: 62)이다. 여기에서는 ‘공기가 움죽이면 바람이라고 하나니라’와 같은 문장에서 ‘바람이라’를 하나의 명사(임씨)로 보았고, ‘고’를 ‘를’과 같은 목적격 표지로 분석하였다. Givón(2001: 153)에서도 언어 유형론적으로 인용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각, 인지, 발화 동사는 절을 보어로 취하는 동사 유형이며, 보어절의 사태는 주절 사태의 목적어라고 하였다. 인용동사 ‘말하다’는 목적어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절도 목적어로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을/를’이 목적격 표지로 사용됨이 일반적이고 간접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의 인용동사가 피동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간접 인용절을 목적어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165)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를 인용격 조사로 분류하고 이 조사가 결합한 성분까지를 간접 인용절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내포절의 절 표지가 어미인 것과 달리 조사가 절 표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인용격 조사]간접 인용절 믿는다.

(2)의 분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를 조사가 아닌 어미로 분석해야 한다. 이익섭(2005: 357)에서는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하고 ‘-고’를 어미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고’가 어간이 아니라 종결어미 뒤에 결합함이 인용절의 특색이라고 하였다. 이는 내포절의 일반적인 표지가 어미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sup>6)</sup> 그러나 ‘고’까지 결합한 성분은 자립성이 없고 항상 어떠한 격조사도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사절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를 격조사로 분석하고 앞의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의 한 유형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의 결합이라는 명사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이면 명사화 과정 없이 명사절로 사용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혜(2014: 145)에서는 종결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 일반적인 명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격조사가 결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간접 인용절의 명사절 분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유현경(2001: 80)에서도 간접 인용절의 ‘고’를 격조사로 보려면, 국어에서 명사절 표지 없이 문장 그 자체에 격조사가 붙는다는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사절의 유형 중에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3) 가.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나. 그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냐]의 문제이다.

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라. 합격은 [문제가 얼마나 쉬운가]에 달렸다.

6) 권재일(1992: 295)에서도 문장이 명사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인용절의 ‘고’를 조사로 볼 수 있지만, 모든 복합문 구성이 어미에 의해 구성됨을 근거로 ‘고’를 어미로 분석하였다.

마.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위의 (3)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인 ‘-느냐’, ‘-는가’, ‘-는지’가<sup>7)</sup> 결합한 구성 뒤에 다양한 격조사들이 결합하여 주어,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제약 없이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하는 분포적 특성은 이 성분들이 명사절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간접 인용절은 종결어미가 결합한 완전문(完全文)의 형식이지만, 이 절의 뒤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sup>8)</sup>

간접 인용절의 명사절 분석은 동일한 의미 기능을 하는 형식을 같은 통사 단위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직접 인용절이 ‘인용’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절이라면 간접 인용절도 명사절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통사·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4) 가. 철수가 동생에게 말한 것은 “함께 가자.”이다.

나. “함께 가자.”, 이는 철수가 동생에게 한 말이다.

다. “함께 가자.” 철수는 걷기 시작했다.

(4)는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가)에서는 직접 인용절이 ‘이다’에 결합하여 분열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7) (3)의 내포절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 의문의 화행을 나타낸다. 따라서 ‘-느냐’, ‘-는가’, ‘-는지’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8) 단문도 하나의 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함병호 2020), 종결어미가 결합한 형식에도 절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문법론에서 의문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구성이 명사절이 될 수 있음은 널리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영근·구분관(2008: 500)에서는 이러한 구성을 명사절이 아닌 인용절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구성을 명사절로 분석하면 간접 인용절도 명사절로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역으로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다’에는 명사구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4나)와 같이 직접 인용절은 문두(文頭)에서 제시어로도 쓰일 수 있는데, 제시어는 ‘청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와 같이 ‘명사구, 문장’ 구성에서의 명사구를 말한다. 따라서 제시어로의 쓰임도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임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4다)는 소설과 같은 문어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유 직접 인용(free direct speech)’이다. 이 인용은 인용절만 있고 상위절의 성분은 쓰이지 않는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sup>9)</sup> 그런데 한국어 내포절 중에서 내포되지 않은 형식으로 홀로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날씨가 맑음.’과 같은 명사절뿐이기 때문에,<sup>10)</sup> (4다)와 같이 홀로 문장을 이루는 직접 인용절은 명사절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직접 인용절이 명사절로 분석된다면 동일하게 인용의 기능을 하는 간접 인용절도 명사절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간접 인용절의 명사절 분석의 또 다른 장점은 구어(口語)에서 간접 인용절에 후행하는 ‘고’가 생략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5) 가. 철수는 영희에게 곧 군대에 간다(고) 말했다.  
 나.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다.  
 다. 장교는 병사에게 빨리 뛰라(고) 명령했다.  
 라. 그 친구는 함께 걷자(고) 요청했다.

9) 자유 직접 인용에 대한 내용은 채숙희(2013: 35-36)을 참조하였다. 서정수(1994/2013: 1340)에서도 직접 인용절에 독립적인 쓰임이 있다고 하였다.

10)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같은 서술절이 내포된 문장에서 서술절인 ‘코가 길다’는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 명사인 ‘코’가 의미상으로 대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6) 가.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다, 곧 군대에 간다\*(고).  
나. 곧 군대에 간다\*(고),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다.  
다. 철수가 때렸다, 영희\*(를).  
라. 영희를 때렸다, 철수\*(가).

(5)에서는 간접 인용절 뒤의 ‘고’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간접 인용절의 ‘고’가 어미라면, ‘고’는 수의적으로 생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이라면 격조사의 생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6가, 나)와 같이 간접 인용절의 자리가 이동되면 ‘고’가 생략될 수 없는데, 이는 (6다, 라)와 같이 다른 격조사들이 보이는 현상과 동일하다.

임동훈(1995: 116-117)에서는 간접 인용절 뒤의 조사 ‘고’가 생략되는 현상을 ‘특정성(specificity)’과 ‘한정성(definiteness)’이라는 명사구의 의미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화자만 알고 있는 특정성의 간접 인용절에서는 ‘고’가 생략되지 못하는 반면에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한정성의 간접 인용절에서는 ‘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간접 인용절에서 ‘고’의 생략이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특정성의 간접 인용절에서도 ‘고’의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자.

- (7) 가. 질문: 철수는 영희에게 어떻게 말했다?  
대답: 철수는 영희에게 [곧 군대에 간다고]초점 말했다.  
나. 질문: 철수는 누구에게 군대에 간다고 말했다?  
대답: 철수는 [영희에게]초점 곧 군대에 간다고 말했다.  
다. 질문: 무슨 일이야?

대답: [철수가 영희에게 곧 군대에 간다고 말했다]<sub>초점</sub>.

라. 철수는 영희에게 [곧 군대에 간다(고)]<sub>초점</sub> 말했다.

(7가-다)에서는 간접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의 정보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문맥에 따라서 간접 인용절, 모절의 부사어, 문장 전체가 초점(focus)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화자가 간접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을 발화하는 중요한 목적은 인용의 내용을 정보로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sup>11)</sup> 간접 인용절은 문장에서 가장 큰 정보적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문장에서 초점은 동사구 앞의 성분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7라)와 같이 간접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에서 간접 인용절은 특정성을 지닌 초점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때에도 ‘고’의 생략이 가능하다.

(7)에서는 인용동사 ‘말하다’가 사용되었지만, 간접 인용절의 정보구조는 인용동사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동사는 크게 ‘말하다, 명령하다, 주장하다’ 등의 ‘말하다’류 발화 동사와 ‘생각하다’, ‘알다’, ‘판단하다’ 등의 ‘생각하다’류 인지 동사로 구분된다.<sup>12)</sup>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전자의 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간접 인용절은 일반적으로 특정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후자의 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간접 인용절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옮겨 와서 화자 자신이 바로 청자가 되기 때문에 한정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11) 인용절은 기본적으로 사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이다. 이와 관련하여 Quirk et al.(1985: 1021)에서는 인용절은 ‘보고절(reporting)’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편, 인용절을 내포한 문장에서 인용동사는 대동사 ‘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전체 문장에서 인용절의 정보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12) 장경희(1987: 491-492)에서는 ‘손짓하다, 눈짓하다’와 같은 행동을 통한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발화 동사’를 ‘화행 동사’로 부르기도 한다.

(8) 가. 철수는 영희에게 자신이 곧 군대에 간다 말했다.

나. 철수는 자신이 곧 군대에 간다 생각했다.

인용동사 ‘말하다’가 쓰인 (8가)에서 간접 인용절은 특정성의 초점이 된다. 반면에 인용동사 ‘생각하다’가 쓰인 (8나)에서 간접 인용절은 한정성의 초점이 된다.<sup>13)</sup> 간접 인용절은 모두 초점으로 분석되지만 간접 인용절의 정보가 특정성과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인용절의 일부 논의에서는 발화 동사가 쓰인 문장만을 인용 구문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인용절의 정보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발화 동사의 인용절이 인지 동사의 인용절보다 더 전형적인 인용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접 인용절은 명사절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음’ 명사절과 동일하게 대상성(對象性)의 의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이필영(1993: 12)에서는 ‘인용’을 ‘언어형식을 표현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인용절은 이미 존재하는 사태가 언어로 형식화된 것을 옮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처럼 인식되어 대상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sup>15)</sup> 직접 인용절은 언어 형식을 그대로 옮겨 오지만 간접 인용절은 인용 화자에 의해서 화시적(deictic) 요소들이 조정을 거쳐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

13) 정보구조에서 초점 성분은 일반적으로 특정성의 의미를 지니지만 한정성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선택 의문문의 대답은 초점이지만 선행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한정성을 지닌다.

질문: 자장면과 짬뽕 중에서 무엇이 좋아?

대답: 난 자장면이 좋아.

14) ‘-음’ 명사절이 대상성의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임홍빈(1974/1998: 539)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 명사절이 [+대상화]의 의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15) 김수태(1996: 5)에서도 인용절이 대상으로 인식되는 대상화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용절의 대상성이 상대적으로 간접 인용절의 대상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절도 옮겨지는 과정에서 명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직접 인용절과 동일하다. 대상성을 지닌 성분들은 대명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간접 인용절의 내용은 지시 대명사로 받을 수 있다.

(9) A: 철수는 영희에게 군대에 간다고 말했어.

B: 군대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야?

B': 그것이 사실이야?

‘-음’ 명사절과 간접 인용절은 모두 대상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양자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남기심(1973/1996: 144-145)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간접 인용절을 완형보문으로, 명사절을 불구보문으로 부르고 양자는 진술된 바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전제가 다르다고 하였다.

(10) 가.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 자백은 고문에 못이겨서 한 거짓 자백일 수 있다.)

나. 그는 자기가 돈을 훔쳤음을 자백했다.

(남기심 1973/1996: 145)

(11) 가. 철수는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했다.

나. ?철수는 자기가 돈을 훔쳤음을 거짓말했다.

간접 인용절이 사용된 (10가)는 돈을 훔친 것이 거짓일 수 있지만

‘-음’ 명사절이 사용된 (10나)에서는 돈을 훔친 것이 사실로 전제된다. 따라서 (11)과 같이 ‘거짓말하다’가 인용동사일 경우에는 ‘-음’ 명사절과 어울리지 않는데, 이는 명사절과 인용동사가 의미적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 인용절은 인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 명사절과 차이를 보이지만, 절 명제의 사실성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간접 인용절이 ‘-음’ 명사절과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명사절의 지위를 가지는 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간접 인용절과 명사절은 일부 통사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둘을 다른 내포절로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건희(2015)에서는 ‘상위문 주어의 주어 통제 현상’이라는 통사적 차이를 근거로 인용절이 명사절과 구분되는 절임을 주장하였다.

(12) 가. 영희가 철수에게 [(영희+철수가) 학교에 가자고] 말했다.

나. 영희가 철수에게 [(영희가, 철수가, 누군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말했다.

(김건희 2015: 131-135)

김건희(2015)에서는 위와 같이 (12가)의 간접 인용절과 (12나)의 ‘-는 것’ 명사절을 비교하면서, 명사절은 내포절의 생략된 주어가 제3자가 될 수 있지만 인용절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인용절이 상위문으로부터 의미 지시적으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2나)의 명사절 내부에서 제3자가 주어라면 생략되지 않고 출현해야 명사절이 온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나)의 ‘-는 것’ 명사절에서도 (12나)와 같이 청유의 화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과 간접 인용절은 주어 통제 현상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13) 영희가 철수에게 [학교에 가자는 것]을 이미 말했다고 했다.

(13)에서는 ‘-는 것’ 명사절 내부에 청유의 화행이 가능하고 이때에 생략된 주어는 모두 상위절의 성분에 의해 통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2. 부사절

내포절 체계에서 부사절은 다른 내포절들보다 통사나 형태적 특성이 매우 다양함을 특징으로 한다. 아래는 한국어학의 절 논의에서 부사절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14) 가.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

나. 날씨가 화창하면, 아내와 여행을 갈 것이다.

다. 철수가 차를 타고 떠났다.

라.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

(14가)의 ‘예쁘게’는 전형적인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절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모절(母節)과 동일한 부사절의 주어가 삭제된 것이다. (14나)의 ‘날씨가 화창하면’은 학교 문법에서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된 종속 접속절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부사절에 포함하는 견해가 널리 수용되고 있다.<sup>16)</sup> (14다)의 ‘차를 타고’는 임흥빈 · 장소원(1995: 302)에서 동사구 부사절로 논의된 것이다. 동사구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익섭(2003)을 참조할 수 있다.

부사절은 동사구 부사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부사절이다. (14라)의 ‘밥을 먹고 있다’는 보조 용언 구성이 사용된 것이지만, ‘밥을 먹고’는 통사 구조적으로는 ‘있다’의 필수 부사절이 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의 부사절의 통사 구조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간접 인용절도 부사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간접 인용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며,<sup>17)</sup> 간접 인용절에 사용되는 인용 표지가 ‘-다고, -냐고, -라고, -자고’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형태들은 어간에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부사형 어미로 분석된다.

(15) 가. 철수는 영희가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나. 철수는 영희가 밥을 먹냐고 물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라. 철수는 영희에게 밥을 먹자고 말했다.

(15)에서는 문장이 간접 인용절로 내포될 때에 상대 높임 어미들이 해라체로 중화되고 문장 유형에 따라서 네 형태 중의 하나로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현경(2001), 이선웅·이은섭(2013), 구분관 외(2015)에서는<sup>18)</sup> 종결어미와 ‘고’가 결합한 ‘-다고, -냐고, -라고, -자고’를 각각 하나의 부사형 어미로 보았다.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 형태들을 하나의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게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

17) 간접 인용절을 명사절로 분석하는 논의들에서도 ‘간접 인용절(명사절)+고(부사격 조사)’가 부사어로 기능한다고 본다.

18) 이선웅·이은섭(2013: 268)에서는 직접 인용절의 ‘라고’도 부사형 어미로 보고 있지만 구분관 외(2015)에서는 직접 인용절의 ‘라고’를 부사격 조사로 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

	연결어미	종결어미	인용어미 <sup>19)</sup>
-다고	○	○	-
-냐고	-	○	-
-라고	○	○	-
-자고	-	○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6)과 같이 ‘-다고, -냐고, -라고, -자고’가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형태들을 하나의 인용어미로 등재하지는 않았지만, ‘-다고, -냐고, -라고’는 어미와 조사 ‘고’의 결합된 형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다고’는 “간접 인용절에 쓰여, 어미 ‘-다’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즉, 이 형태들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미의 지위로 인용 표지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에 결합할 때에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 동일하게 ‘-다, -냐, -라, -자’와 ‘-고’ 사이에 휴지(pause)가 개입할 수 없다. 휴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형태가 하나의 어미를 구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다고, -냐고, -라고, -자고’는 인용 표지뿐만 아니라 다른 구문에서도 독자적인 통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이 간접 인용

19) 여기서 ‘인용어미’는 ‘인용의 기능을 나타내는 어미’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본다. 따라서 연결어미나 인용어미는 모두 부사형 어미에 포함된다.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른 어미들과 달리 ‘-자고’는 이러한 쓰임을 기술하지 않았다.

절과 관련성을 가지는 확인 의문문에서는 각 문장 유형에 따라서 ‘-다 고, -냐고, -라고, -자고’의 형태만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고’가 생략되지 못한다.

(17) 가. (집에 간다.) 지금 집에 간다고?

나. (집에 가니?) 지금 집에 가냐고?

다. (집에 가라.) 지금 집에 가라고?

라. (집에 가자.) 지금 집에 가자고?

간접 인용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지시 부사로의 대용화’, ‘인용 표지의 부사격 조사로의 교체’, ‘문장에서의 자유로운 위치 이동’이다.

(18) 가. A: 철수는 민수가 집에 간다고 말했어.

B: 맞아, 철수가 그렇게 말했어.

나. 철수는 민수가 집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

다. 철수는 이렇게 말했어, 민수가 집에 간다고.

(19) 가. 철수는 민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나. 철수는 민수를 바보로 생각한다.

(20) 가. 철수는 영희에게 민수가 집에 간다고 말했어.

나. 민수가 집에 간다고,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어.

다. 철수는 민수가 집에 간다고 영희에게 말했어.

라.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어, 민수가 집에 간다고.

(18)에서는 간접 인용절이 부사어 ‘그렇게’, ‘이렇게’로 대용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용화는 대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범주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부사어로 대용화되는 현상은 이 성분이 부사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19)에서는 인지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간접 인용절에 ‘이다’가 결합되어 있다면, 명제 내용의 변화 없이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한 형식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접 인용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0)에서는 간접 인용절이 문장의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포가 자유로운 내포절은 부사절밖에 없다.

간접 인용절과 부사절의 통사적 차이는 부사절의 주어에는 일반적으로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없지만, 간접 인용절의 주어에는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1) 가. \*철수는 몸은 아파서 집에 일찍 왔다.

나. \*겨울은 되니 날이 춥다.

다. \*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해라.

라. \*그는 다그칠수록 나는 귀를 막았다.

(22) 가. 나는 친구에게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다.

나. 저는 그는 곧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철수는 민수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21)과 같은 부사절의 화제 제약은 다른 내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포절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22)의 간접 인용절이 부사절이라면 이러한 화제 제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접 인용

절은 이러한 제약을 벗어난다.

이와 같이 간접 인용절의 주어에 화제 표지인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인용절의 화시적 요소를 화자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 인용절에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간접 인용절의 인용 화자는 간접 인용절 내의 인칭 대명사, 시간과 장소 표현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간접 인용절 내의 성분들이 변화를 입게 되는데, 주체(主體)에 화자의 주의를 집중되면서 화제 표지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제는 ‘심리 초점’으로도 불린다.

한정한(2002: 539)에서는 화제나 초점과 같은 정보 범주는 반드시 발화 단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정보구조 형성 제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발화 단위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간접 인용절은 종결어미를 가진 완전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홀로 발화 단위가 될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간접 인용절은 정보구조 형성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설명은 긴 동격 관형사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3) 가. 영희는 철수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철수와 영희는 서로 싫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긴 동격 관형사절도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과 같이 관형사절의 주어에 화제 표지가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내포절의 화제 제약이 간접 인용절을 다른 내포절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21) 인용절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채숙희(2013: 50)에서는 인용 구문을 ‘인용동사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 쓰일 수 있는 피인용문을 보어로 취하는 구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3. 보절

간접 인용절은 인용동사가 통사·의미적으로 요구하는 보어 성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학에서 간접 인용절은 보문(보절)로 분류되었고, ‘고’는 보문을 형성하는 보문자로 논의되어 왔다(남기십 1973/1996, 장경희 1987, 엄정호 2005 등). 이와 관련하여 최규수(2009: 185)에서는 인용절을 ‘인용동사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절’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김선혜(2014: 152)에서는 간접 인용절이 보절임을 주목하여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과는 층위를 달리하는 내포절의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인용절은 항상 인용동사의 보충어로서 나타나지만 다른 내포절들은 상위문 서술어와 항상 논항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과 구분해서 다른 내포절 유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품사 차원의 내포절을 안은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안은 문장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문장 성분 차원의 내포절을 안은 문장에는 보절과 부가절을 포함하고 인용절은 항상 인용동사가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보절이 되고, 종속접속절은 접속문 체계에 포함되기 어렵고 필수적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절에 포함하였다.<sup>22)</sup>

요컨대, 위의 논의는 문장 성분을 절 체계에 반영하여 기존의 내포절 층위와는 다른 위치에 보절과 부가절이라는 새로운 내포절을 설정하고, 기존의 종속접속절을 접속절이나 부사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용절이 인용동사의 논항이 되는 절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용절이 명사절이나 부사절에

22) 김건희(2015)에서도 인용절을 명사절이나 부사절과 구분하고 인용절이 내포절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인용절을 다른 내포절들과 다른 층위에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선혜(2014)와 차이를 보인다.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내포절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된 내포절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절은 용언의 논항구조의 요구에 의해서 성립되는 절의 유형으로, 한국어에서는 간접 인용절이 대표적인 보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절의 범위에는 간접 인용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보절을 설정하면 다른 내포절들과 그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4) 가. 영희는 학교에 가고 싶다.

나. 꽃이 시들어 버렸다.

(25) 가. 나는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 철수는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

(24)의 보조 용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은 통사 구조적으로 부사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장 끝의 용언은 통사·의미적으로 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사절을 보절로 분석할 수 있다.<sup>23)</sup> 또한 (25)는 동격 관형사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인데, 이때의 동격 관형사절은 후행하는 머리 명사(head)의 보절이 된다. 따라서 내포절 체계에서 따로 보절을 설정하고 인용절만 이 보절에 포함된다면 내용은 성립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간접 인용절은 인용동사의 보절이 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부가절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23) 임흥빈·장소원(2015: 302)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이 사용된 문장을 보문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분석한다.

(26) 가. 그는 왜 항상 자기가 앞장을 서야 하느냐고 우리 모임에서  
탈퇴했다. (남기심 2001: 276)

나. 그는 사람들에게 잘 봐 달라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  
였다. (김건희 2015: 146)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냐고’는 연결어미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26가)에서 ‘-냐고’가 결합한 성분은 간접 인용절이고 후행하는 인용동사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기심(2001)에서는 (26가)에서 ‘탈퇴하다’가 인용절을 보충어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간접 인용절들이 부가어로 쓰인 것으로 보았다. 김건희(2015: 146)에서는 (26나)가 간접 인용절 뒤의 상위문의 인용동사가 생략되어 후행하는 절과 연결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의 간접 인용절도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어 성분이다.

둘째, 김선혜(2014)에서는 보절과 부가절을 문장 성분 차원의 내포절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과 같이 품사 명칭을 사용하는 내포절들도 문장에 내포되면서 필수적으로 문장 성분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명사절은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사용될 수 있지만, 관형사절은 관형어, 부사절은 부사어, 서술절은 서술어로 제한된다. 즉, 내포절이라는 통사 범주는 개념상 그 쓰임이 문장 성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요컨대, 내포절 체계에서 인용절을 위한 보절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

24)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분관 외(2015: 259)에서는 포유문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이며, 안겨 있는 절을 내포절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건희(2015: 129)에서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이 이들의 통사 범주 및 기능 중심으로 명명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능 중심은 문장 성분과 관련된다.

### 3.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앞에서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과 부사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간접 인용절은 내포절 체계에서 독자적으로 절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분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25)</sup>

(27) 가. 철수는 [영희가 밥을 먹는다]<sub>명사절=간접 인용절+고</sub> 부사격 조사 말했다.

나. 철수는 [영희가 밥을 먹는다고]<sub>부사절=간접 인용절</sub> 말했다.

위의 두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본고에서는 앞서 부사절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간접 인용절의 ‘-다고, -냐고, -라고, -자고’를 부사형 어미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 어미들이 결합한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이 된다. 그리고 이 어미를 종결어미와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한 복합어미로 분석한다. 통시적으로 ‘고’는 ‘후고’에서 조사화한 형태로, 한국어의 해라체 종결어미들이 확립된 후 이 종결어미들과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하여 복합어미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를 부사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명사절로 분석되는 직접 인용절에 ‘라고’가 아닌 ‘고’가 결합하고 직접 인용절과 ‘고’ 사이에 휴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up>26)</sup>

25) 간접 인용절은 독자적인 절의 지위를 갖지는 못하지만, 인용의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간접 인용절’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6) 직접 인용절에 ‘고’가 결합할 수 있음은 이필영(1993), 채숙희(2013) 등의 여러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필영(1993: 38)에 따르면, 직접 인용절에 ‘고’가 결합하는 경우는 인용절의 종결형이 ‘-다, -냐, -라, -자’ 등과 같이 모음 ‘아’로 끝나는 것으로 제한된다.

(28) 가. 철수는 “도서관에 가냐?”고 물었다.

나.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다.”고 한다.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같이 어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부사형 어미를 이루고 있는 다른 유형의 어미에는 원인과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기에’와 ‘-기로’가 있다. 이 어미들은 각각 명사형 어미 ‘-기’와 부사격 조사 ‘에’와 ‘로’가 결합된 형태로 분석된다.

(29) 가. 얼마나 잤기\*(에) 얼굴이 그러니?

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로) 이에 표창합니다.

부사형 어미 ‘-기에’와 ‘-기로’에서는 각각 부사격 조사 ‘에’와 ‘로’가 생략될 수 없다. 이는 ‘-기에’와 ‘-기로’의 원인과 이유의 의미가 조사 ‘에’와 ‘로’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다.<sup>27)</sup> 반면에 ‘-다고, -냐고, -라고, -자고’는 하나의 부사형 어미이지만 ‘고’가 생략될 수 있다. 이는 부사형 어미 ‘-다고, -냐고, -라고, -자고’에서 종결어미만으로 절 표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고’의 기능 부담량이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종결어미가 절 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종결어미가 모절과 내포절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접 인용절은 형식적으로 종결어미를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에 인용절임을 알 수 있게 하여 다른 내포절들과 명확하게 구분된다.<sup>28)</sup> 또한 종

27) 부사격 조사 ‘에’와 ‘로’가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아래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철수는 큰 소리에 잠을 깼다.

나. 이번 겨울에는 감기로 많이 고생했다.

28) 종결어미가 내포절 표지로 기능할 때에는 분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격 관형사절도 완전문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종결어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필수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간접 인용절과 차이가 있다.

결어미를 절 표지로 분석하면 모든 내포절이 절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일반화를 충족시킬 수 있다.<sup>29)</sup>

즉, 인용의 복합어미들은 구조적으로 종결어미와 부사격 조사의 긴밀성이 약하며, 종결어미의 존재로 인하여 ‘고’가 간접 인용절임을 나타내는 데에 그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sup>30)</sup> ‘고’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어렵지만 선행 명사구의 의미로 인해서 부사격 조사의 기능 부담량이 적을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아래의 (30가-나)에서와 같이 장소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서는 ‘에’의 생략이 가능하며, (30다-라)와 같이 명사가 부사성을 지니고 있으면 ‘(으)로’의 생략도 가능하다.

(30) 가. 철수는 방배동(에) 산다.

나. 그는 8월(에) 논문을 발표한다.

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

라.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와주겠다.

간접 인용절에서 ‘고’의 생략과 동일하게 어미에서 일부 형태가 생략되는 현상이 목적의 부사형 어미 ‘-려고’와 목적, 이유의 부사형 어미 ‘-느라고’에서도 확인된다(유현경, 2001: 87). 이 어미들에서도 ‘고’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29) 이러한 내용은 기존에 간접 인용절의 종결어미를 보문자로 분석하는 견해와 연결된다. 종결어미가 절 표지가 될 수 있음은 윤정원(2011: 3)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질문은 ‘그가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였다.”와 같은 문장에서 종결어미 ‘-까’는 인용이 실현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통사적인 표지로서 상위문과 하위문의 경계를 뚜렷하게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30) 이와 관련하여, 채숙희(2013: 54)에서는 인용 표지가 인용구문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논의한 바 있다.

31) ‘-려고’, ‘-느라고’의 ‘고’는 부사격 조사가 아닌 부사형 어미로 분석된다. 그런데

(31) 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돈을 모은다.

나. 초롱이는 시를 쓰느라(고) 밤을 새웠다.

(32) 가. 돈을 모은다, 내 집을 마련하려(고).

나. 초롱이는 밤을 새웠다. 시를 쓰느라(고).

(31)의 부사형 어미에서 ‘고’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간접 인용절의 ‘고’ 생략 현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고’가 생략된 ‘-려’, ‘-느라’만으로 ‘고’가 생략되지 않은 어미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어미들에서는 간접 인용절보다 ‘고’의 필수성이 더 약해서 (32)와 같이 부사절이 문장에서 이동할 때에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인용의 부사형 어미 ‘-다고, -냐고, -라고, -자고’가 결합한 간접 인용을 부사절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고’가 생략되고 종결어미로만 실현된 간접 인용절은 명사절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간접 인용절의 명사절 분석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고’ 앞의 종결어미까지 결합한 간접 인용절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명사절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고, -냐고, -라고, -자고’에서 그 역할이 약한 부사격 조사 ‘고’가 생략되었다면 선행하는 성분은 명사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

(33) 가. 철수는 [민수가 밥을 먹었다고]부사절 말했다.

나. 철수는 [민수가 밥을 먹었다]명사절 말했다.

---

왜 어미인 ‘고’가 수의적으로 탈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려’와 ‘-느라’는 각각 ‘-려고’와 ‘-느라고’에서 ‘고’가 탈락할 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어미로 볼 수도 있는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요컨대, 간접 인용절은 조사 ‘고’의 유무에 따라서 위와 같이 부사절과 명사절로 구분된다. (33가)와 같이 ‘고’까지 결합된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로 분석된다. 그러나 (33나)와 같이 ‘고’가 생략되어 있다면 명사절로 분석되며 이때에는 종결어미가 절 표지 기능을 한다.

하나의 어미에 결합해 있는 형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미가 결합해 있는 구성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낫설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격식체의 종결어미 ‘-어요’와 ‘-어’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34) 가. 철수는 집에 갔어요[갔+-어요(-어+요)]. (해요체 문장)

나. 철수는 집에 갔어[갔+-어]. (해체 문장)

(34가)에서 ‘-어요’는 종결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하나의 종결어미이다. 그런데 (34나)와 같이 보조사 ‘요’가 없으면 문장 전체의 상대 높임 등급이 바뀌게 된다. 이는 조사의 유무 하나로 문장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본고의 간접 인용절의 분석과 동일하다.

그런데 ‘고’까지 결합한 형식이 전형적인 간접 인용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분석되는 인용절도 어느 정도는 부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명사구이지만 부사성을 지니는 다른 예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가. 저는 밥을 먹을 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 그대가 떠난 후(에) 내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다. 그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나에게 막말을 했다.

(구본관 외 2015: 273)

구본관 외(2015)에서는 기능을 고려하면 (35)의 문장들에서 명사구를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32)</sup> 그러나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35)의 문장들이 부사절을 내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사구가 부사성의 의미를 지니고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33)</sup>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과 부사절에 걸쳐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한 단어가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되는 현상과도 유사하다.

- (36) 가. 오늘이 원고 제출 마지막 날이다. - 명사  
나. 오늘 해야 할 일은 원고 제출이다. - 부사

(36)에서는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은 문장에서의 분포에 따라서 명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외에 ‘어제, 아까, 방금, 지금’과 같은 시간 표현들은 모두 명사와 부사로 통용된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품사가 통용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용’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언어 표현을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성을 가지며, 인용동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상태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간접 인용절은 ‘인용’의 의미 기능에 의해서 명사성과 부사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

32) 서정수(2005: 287-298)에서도 ‘-기 전에’, ‘-ㄴ 뒤에’ 등의 명사구와 격조사 형식이 뒤 절과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33) 이와 반대로 부사절이 명사절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홍종선(1985: 131)에서는 어미 ‘-아, -게, -고’가 이끄는 내포절이 체언화된다고 논의하였다. 예컨대, ‘강아지가 죽어 간다.’라는 문장에서 ‘강아지가 죽-’이 주어진 명사절이 되고 ‘간다’가 서술어가 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수용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의는 부사절과 명사절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내포절 체계에서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를 살펴보고 간접 인용절이 부사절과 명사절의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절의 형식, 직접 인용절과의 관계, 조사 ‘고’의 생략, 대상성의 의미를 고려하면 간접 인용절은 명사절로 분석된다.

둘째,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부사형 어미화, 지시 부사로 대용화, 인용 표지의 부사격 조사로의 교체, 문장에서의 자유로운 위치 이동을 고려하면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로 분석된다.

셋째, 보절을 문장 성분 기능을 지닌 내포절의 한 종류로 분석하고 간접 인용절을 여기에 포함하려는 논의는 부사절과 관형사절도 보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품사명을 사용하고 있는 내포절도 문장 성분 기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넷째,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과 명사절의 지위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종결어미와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한 ‘-다고, -냐고, -라고, -자고’는 부사형 어미이다. 따라서 이 어미들이 결합한 간접 인용절은 부사절이다. 그러나 ‘고’가 생략되어 종결어미로만 구성된 간접 인용절은 통사·의미적으로 명사절의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간접 인용절이 명사절과 부사절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인용’의 의미가 명사성과 부사성을 지니는 것과 관계가 있다.

**[ABSTRACT]****Syntactic status of Indirect Quotative Clauses**

Ham, Byeong-ho(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yntactic status of indirect quotative clause in the embedded clause system through the relevance of nominal clause, adverbial clause, and complement clause. First, considering the form of a nominal cl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 quotative clause, the omission of the josa ‘고’, and the meaning of objectivity, indirect quotative clause can be analyzed as nominal clause. Also, considering the adverbial endings ‘-다고, -냐고, -라고, -자고’ and various syntactic characteristics, the indirect quotative clause can be analyzed as an adverbial clause.

In conclusion, indirect quotative clauses can be analyzed as adverbial clause or nominal clause. Since the form in which the final ending and the josa ‘고’ are combined is an adverbial ending, the indirect quotative clause combined with these endings is an adverbial clause. However, an indirect quotation clause consisting only of a final ending is a nominal clause because it has several characteristics of a nominal clause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Key words:** quotative clause, direct quotative clause, indirect quotative clause, embedded clause, nominal clause, adverbial clause, complement clause

[ 참고문헌 ]

□ 단행본

- 고영근 ·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남기심 외(1985/2019), 『표준 국어문법론(전면 개정판)』, 한국문화사.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서정수(1994/2013), 『국어문법』, 집문당.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최규수(2009), 『한국어 통사론 입문』, 박이정.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홍재성 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  
 부 · 국립국어연구원.  
 Givón, T.(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I*, John Benjamins.  
 Quirk, R.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 논문

- 김건희(2015), 「인용절에 대한 재고찰」, 『한글』 307, 한글학회, 125-169면.  
 김선혜(2014), 「한국어 내포절 체계에 대한 재고 - 부사절과 인용절의 문제를 중  
 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131-156면.  
 김수태(1996), 「인용절과 완형보문」, 『국어국문학지』 33, 부산대 인문대학 국어

- 국문학과, 51-70면.
- 남기심(1973/1996), 「국어의 완형보문법」,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133-254면.
- 안명철(1998), 「동사구 내포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517-550면.
- 엄정호(2005), 「동사구 보문의 범위와 범주」,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태학사, 207-238면.
- 유현경(2001), 「간접인용절에 대한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 V』, 태학사, 77-92면.
- 윤정원(2011), 「인용절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55,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169-190면.
- 이선웅 · 이은섭(2013), 「이론 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 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49-277면.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7-138면.
- 임홍빈(1974/1996), 「명사화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심층 1』, 태학사, 529-551면.
- 한정한(2002),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언어』 27-3, 한국언어학회, 535-556면.
- 함병호(2020), 「통사 단위 ‘절’에 대한 일고찰」, 『동악어문학』 80, 동악어문학회, 249-278면.
- 홍중선(1985), 「국어 체언화(體言化)의 개념과 범주」,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117-137면.